

SNAPSHOT 2024:

미국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현황

목차

3. 소개

- 5 미디어 리터러시 및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정의
- 6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핵심 원칙
- 7 이 스냅샷에 대하여
- 8 미디어 리터러시: 연구 및 정책
- 10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 12 미디어 리터러시: 대중의 이해

14 연구 결과

- 15 설문조사 참여자
- 17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장소 및 방법
- 19 주요 과제: 시간 및 자원
- 20 다양한 교육 및 커리큘럼을 사용하는 교사
- 23 주요 과제: 양질의 정보 식별하기
- 26 주별 정책과 교육자의 인식 차이

29 권장 사항

- 31 명확화 및 협업
- 32 전 학년에 걸친 확장
- 33 투자 확대
- 34 결론

36 설문조사 질문

37 참고문헌

40 감사의 말씀

소개

2018년, 전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협회(NAMLE)는 처음으로 미국 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으며, 현장의 어려움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진행했습니다. NAMLE의 네트워크를 통해 배포된 설문에는 총 331명이 응답했습니다. NAMLE는 이 결과를 토대로 2019년 미디어 리터러시 스냅샷 보고서(Culver & Redmon, 2019)를 발간했으며, 이 보고서에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여섯 가지 권장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2019 스냅샷: 6가지 권장 사항

- 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교사 연수 및 전문성 개발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특히 사범대학에서의 예비 교사(pre-service teacher)와 현직 교사(in-service teacher) 연수, 교원 양성과정을 담당하는 교수진과 프로그램 조정자들을 위한 연수, 그리고 방과후나 학교 밖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육자들을 위한 전문성 개발 기회를 강화해야 합니다.
- ② 다양한 집단, 특히 유색인종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의 참여, 연구 활동, 교육,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 ③ 실천에 대한 탐구를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소규모 질적 사례 연구부터 대규모 종합 민족지학적 조사¹⁾까지 포함한 연구를 장려하여, 미디어 리터러시 실천을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구조를 이해하고, 교실과 다양한 환경에서 실제로 어떻게 실천되고 평가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 ④ 온라인 기반의 통합 자료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단순히 콘텐츠 자료만이 아니라, 다양한 연령과 학년, 교육 맥락에 적합한 완성도 높은 강의 설계와 수업안을 포함해야 하며, 이 안에는 명확한 학습 목표, 평가 기준, 그리고 적절하고 관련성 있는 교수법이 담겨야 합니다.
- ⑤ 매년 설문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연구, 실천, 평가 분야에서의 변화, 개선, 그리고 새로운 도전과제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 ⑥ 미디어 리터러시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캠페인 등 대중 참여 활동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이러한 권고안을 토대로, NAMLE는 2019년 이후 다양한 변화와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1) 민족지학적 조사(Ethnographic research):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일상적 경험, 행동, 의미 형성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질적 연구 방법. 연구자가 직접 참여·관찰하거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사람들이 실제 맥락 속에서 미디어나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이해하려는 접근

전국 미디어 리터러시 연합

2020년에 출범한 이 연합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21세기 미국 교육의 필수 요소로 발전시키기 위해 연합한 주요 교사 회원 협회로 구성된 NAMLE 주관의 네트워크입니다. 연합에는 다음과 같은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 미국 학교 사서 협회
- 국제 교육 기술 협회
- 저널리즘 교육 협회
- 전국 유아 교육 협회
- 전국 사회학 협의회
- 전국 영어 교사 협의회
- 전국 수학 교사 협의회
- 국립 과학 교육 협회
- 전국 글쓰기 프로젝트
- PBS 교육
- 청년 도서관 서비스 협회
- 국립 미디어 예술 교육 단체(지문 기관)

연례 온라인 컨퍼런스

교육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포괄적인 전문성 개발을 제공하기 위해 NAMLE는 격년으로 개최하던 컨퍼런스를 연례 온라인 컨퍼런스로 전환했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핵심 원칙 업데이트

2022년, NAMLE는 핵심 문서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핵심 원칙'을 1년간 개정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개정된 문서는 2023년 5월에 발행되었습니다.

연구 프로젝트

2020년, NAMLE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공통 사례를 파악하고 이를 다양한 교육 환경에 걸쳐 매핑하기 위한 국제 연구 프로젝트의 1단계(미국 및 호주 팀과 함께)를 지원했습니다. 2022년, NAMLE는 영향력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관행 매핑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미국 팀에 소규모 2단계 보조금을 지원하여 연구 결과에 대한 포커스 그룹 조사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NAMLE 리브랜딩 및 'Stop Media Monsters(미디어 괴물 퇴치)' 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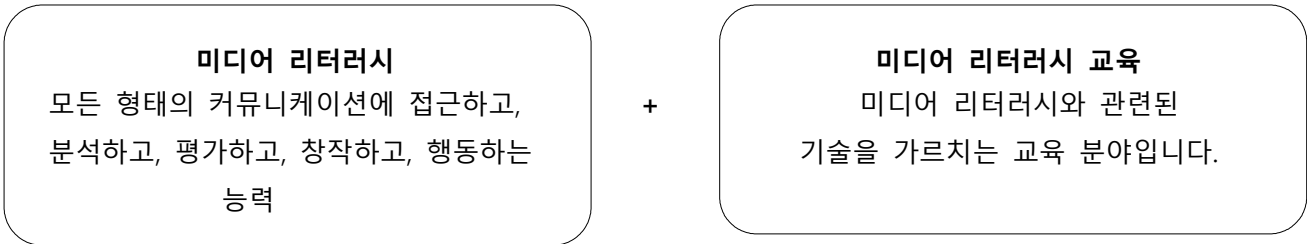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NAMLE는 조직을 개편하고 미디어 리터러시를 증진시키기 위한 홍보 캠페인을 개발했습니다.

2018년 첫 설문조사 이후 5년이 지난 지금, NAMLE는 교육자들의 시각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분야의 변화와 발전을 다시 점검하고자 2023년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2018년과 유사한 질문으로 구성해, 당시 결과와 비교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수집된 새로운 데이터는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한 연구, 정책, 교육 실천, 그리고 대중 인식의 최근 변화와 흐름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핵심 질문에 답하고자 했습니다.

- 지난 5년간 미국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 무엇이 개선되었는가?
- 반대로, 무엇이 더 어려워졌는가?
- 앞으로 이 분야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미디어 리터러시 및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정의

이 보고서는 현재 미국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더 널리 인식시키고 효과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어떤 과제들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보고서 후반부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란 무엇이며,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의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문제를 중요한 주제로 다룹니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NAMLE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p>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 미디어의 구조, 시스템, 이데올로기, 재현, 권력을 비판적으로 탐구하는 데 중점을 둔 탐구 기반의 미디어 리터러시</p>	<p>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도구가 사회와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에 중점</p>
<p>정보 리터러시 필요한 정보를 찾아 분석·평가·활용하고, 이를 되돌아볼 수 있는 능력까지 포함한 역량</p>	<p>뉴스 리터러시 전문적인 저널리즘의 기준, 관행, 윤리를 이해하고 인식하여 뉴스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역량</p>

미디어 메시지에 대한 접근과 이해는 문화, 기술 경험, 정보 생태계, 경제 구조와 깊이 맞물려 있습니다. 이에 따라 NAMLE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이러한 요소와 더불어, 다른 중요한 현대적 리터러시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간주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핵심 원칙

NAMLE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핵심 원칙(Core Principles of Media Literacy Education)을 통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목적과 교실 현장에서의 실천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들은 교육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모범적인 사례를 포함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해 무엇이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1. [Expands] 문해력의 개념을 확장한다.

미디어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문해력을 아우르며, 다양한 리터러시를 통합해 성찰적이고 주체적인 미디어 소비자이자 창작자를 길러낸다.

2. [Envisions] 모든 개인을 유능한 학습자로 본다.

각자의 배경, 지식, 기술, 신념을 활용해 미디어 경험에서 의미를 창출하는 능력을 존중한다.

3. [Promotes] 탐구 기반 수업을 장려한다.

호기심, 개방성, 자기 성찰적 탐구를 우선시하며, 이 과정에서 이성과 논리, 증거를 강조한다.

4. [Encourages] 비판적 사고와 성찰을 독려한다.

학습자가 자신이 접하거나 창작하고 공유하는 메시지를 능동적으로 분석·반성할 수 있도록 한다.

5. [Necessitates] 지속적인 기술 습득을 필요로 한다.

연령과 발달 단계에 맞고, 학제 간·상호작용적인 방식의 기술 훈련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6. [Supports] 참여적 미디어 문화를 지원한다.

개인이 미디어를 창작·공유하는 과정에서 윤리적 책임을 탐색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다.

7. [Recognizes] 미디어 기관의 사회적 역할을 인식한다.

미디어 기관이 사회화, 상업, 변화의 주체로 작동하는 문화적·상업적 제도임을 강조한다.

8. [Affirms] 공익을 위한 건강한 미디어 환경을 확립한다.

정부, 기업, 시민이 공동 책임을 가지고 미디어·기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9. [Emphasizes] 비판적 탐구를 강조한다.

미디어 산업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권력·포용·사회 정의·지속 가능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탐구한다.

10. [Empowers] 개인을 역량 있는 시민으로 강화한다.

정보를 바탕으로 성찰적이고 참여적이며, 민주 사회에서 책임 있는 구성원이 되도록 돕는다.

이 스냅샷에 대하여

'스냅샷 2024'는 미국 내 다양한 교육자들이 활용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콘텐츠, 교육 기준, 인식 등을 조사한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NAMLE는 2019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맥락을 제시하고 현장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첫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스냅샷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2024년 보고서 역시 2019년과 마찬가지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현황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로 보아야 하며, 전수조사나 대표성을 갖춘 대규모 연구는 아닙니다. 또한 NAMLE는 이 조사에서 드러난 사례 외에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매우 다양한 환경과 공간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2023년 7월부터 9월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되었습니다. 설문조사는 NAMLE 회원 데이터베이스, 뉴스레터, 소셜미디어를 통해 배포되었으며, 전국 미디어 리터러시 연합의 교사 조직을 통한 홍보도 병행되었습니다. 설문은 예/아니오, 객관식, 선다형, 복수 선택형, 정답형, 주관식 등 다양한 형식의 2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총 310명이 응답했습니다. 응답자는 미국 전역의 미디어 리터러시 커뮤니티 구성원으로,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한 표본입니다.

설문조사 내용

- 조사시작: 2023년 9월 7일 ~
- 22개 질문
- 310명 대상

2019년 첫 스냅샷 발표 이후, 문화·정치·교육·미디어·기술 전반에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팬데믹의 장기화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원격 교육의 보편화를 앞당기는 한편, 지역 사회 내 심각한 디지털 격차를 드러냈습니다. 또한,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퍼뜨린 허위 정보가 대통령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친 시대를 경험했습니다. 지역 뉴스와 저널리즘의 약화로 '뉴스 사막' 현상이 확산되었고, 미국 교육계는 최근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교사 이직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Diliberti & Schwartz, 2023). 이러한 변화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뿐 아니라 전 세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자들의 교육 경험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맥락 속에서 최근의 연구, 정책, 교육 환경, 그리고 대중 인식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연구 및 정책

미디어 리터러시는 더 이상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적인 삶의 기술이자 교육과정의 핵심 요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사용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꾸준히 연구해 왔으며, 최근 연구들은 소셜 미디어가 청소년에게 미칠 수 있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모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 한 연구(Riehm et al., 2019)는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불안이나 우울증 등 정신 건강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두 배 이상 높다고 보고했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오늘날 교실에서 삶에 꼭 필요한 기술이자 교육과정의 핵심 요소로 점차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2023년 미국 법무부 장관 자문 보고서는 “학교와 학업 기준 내에서 디지털 및 미디어 리터러시 커리큘럼의 개발, 실행, 평가를 지원할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2023, p.15).

같은 해,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도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발달 단계에 맞춘 디지털 리터러시와 웰빙 기술을 교육할 수 있도록, “교육을 위한 자원, 정책, 모범 사례”를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처럼 미디어 리터러시와 사회·정서적 건강의 연관성에 대한 관심은, 학생들이 스스로가 미디어와 자신이 살아가는 세상을 더 잘 이해하고자 하는 열망을 반영하는 것입니다(Belic, 2020).

연구 및 정책의 주요 주제

- 청소년 소셜 미디어 사용의 영향
- 미디어 사용과 사회적·정서적 건강 사이에 연관성
- 교실에서의 스마트폰 사용
- 교육 기술
- 정부의 정책 의무를 통과시키기 위한 입법 노력

교육자와 전문가들은 교실에서 미디어 도구가 교육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스마트폰을 포함한 기술의 책임 있는 사용을 어떻게 가르칠지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유네스코가 2023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년간의 연구를 종합한 결과 교육 기술이 학습 성과에 작게는 소폭, 크게는 중간 수준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교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바와도 일치합니다. 대부분의 교사는 교실에서 미디어 기술을 활용하면 학습 효과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구 및 정책

교실에서의 미디어 기술은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보고서는 정부가 교실 내 디지털 도구와 관련된 연구 기반 교수법을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 입안자와 교육자들이 '인간 중심의 교육'을 바탕으로 기술이 교실에서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 방식과 그 가치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p. 23).

그 내용은 정규 수업 편성 의무에서부터, 교사 전문성 개발, 그리고 전담 코디네이터 배치, 교육과정 모델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까지 다양합니다.

다만, 각 주에서 제정한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법률은 여전히 큰 차이를 보입니다. 특히 정책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뉴스 리터러시, 정보 리터러시 등 서로 다른 개념을 혼용하는 경우가 많아, 정의와 범위에서 일관성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Media Literacy Now에 따르면 2023년 현재 18개 주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내용을 정책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그 범위는 필수 교육부터 교사 전문성 개발, 코디네이터 직책 또는 교육 과정 모델을 만들도록 하는 규정까지 다양하고 적용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평가하는 일은 쉽지 않지만, 로드아일랜드의 미디어 교육 연구소(Media Education Lab), 미디어 리터러시 나우(Media Literacy Now), 그리고 매사추세츠의 한 교육구가 협력한 사례는 연구자와 교육자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공동 연구팀은 르네 홉스(Renee Hobbs)가 개발한 '미디어 리터러시 실행 지수'(Media Literacy Implementation Index)를 활용해, 학생들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어느 정도 노출되었는지를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Media Education Lab, 2023).

또한, 주(州) 교육과정에 미디어 리터러시를 의무화하려는 정책적·입법적 노력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나우'(Media Literacy Now)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8개 주가 정책에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문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교과 전반에 통합할지, 아니면 별도의 독립 과목으로 구성할지에 대해서도 주마다 정책적 접근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에 대해 Bulger 등(2023)은 "미디어 리터러시는 종종 사람과 미디어 사이의 다양한 상호작용 수준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임시방편적으로 도입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특정 학년이나 수업에 국한되지 않고 학습자의 전 생애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교육과정 개발과 발달 단계에 맞춘 점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한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정책이 마련된 주에서도 교사 역량, 교육 자료, 최신 커리큘럼에 대한 실질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Garcia 등(2021)은 미국 전역의 미디어 리터러시 법안을 분석한 결과, "미디어 리터러시 정책은 전국적으로 보편화되었다기 보다는, 여전히 특별한 경우가 많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시행 중인 많은 정책조차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자원과 인프라를 거의 포함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교육

전국 교사 단체는 2019년부터 미디어 리터러시를 우선순위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2022년, 전미영어교사협회(NCTE)와 전미사회과 교육자협회(NCSS)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전미영어교사협회(NCTE)는 성명서에서 “영어 교사는 학생들이 일과 삶,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적 책임이 있으며, 따라서 미디어교육은 교사의 전문성을 구축하는 필수 요소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예비 교사와 현직 교사 모두를 대상으로 실습 중심의 전문성 개발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미사회과교육자협회(NCSS)는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혁명적 변화가 기존처럼 사실 전달과 평가에만 치중하는 교육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신, 학생들이 핵심 질문을 던지고, 서로 다른 주장을 비교하며, 정보의 신뢰성을 평가하고, 자신의 추론 과정을 성찰하며, 특정 내러티브 확산으로 누가 이익을 얻고 누가 손해를 보는지 판단하는 등 정보를 습관적으로 분석·평가하는 역량을 기르는 데 교육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담당할 교사 준비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차원의 미디어 리터러시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지만, 여러 새로운 프레임워크가 학년간 연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크로스워크(crosswalk)’라고 불리는 이러한 프레임워크는 미디어 리터러시 학습 성과를 각 주에서 이미 채택한 교육 기준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새로운 분야별 프레임워크(예: 디지털 시민성 또는 사회 정의 프레임워크)

에도 미디어 리터러시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미국 교육부, 2024; ISTE, 2018 참조).

Rogow(2023)는 “미디어 리터러시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포괄하는 단일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뉴욕주와 같이 일부 주에서는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이 함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습득해야 할 의미 있는 지식, 기술 등을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의 주요 주제

- 교사 교육 기관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지원 강화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성과를 기존 교육과 연계하는 프레임워크
- 유치원부터 6학년까지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조
- 교육과정 검열과 도서 금지 조치
- 교육의 정치화, 특히 인종차별에 대한 과거 및 현대적 논의

교육 (계속)

미디어 리터러시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발달 단계에 적합한 자료와 연수를 강화해, 유치원부터 6학년까지 미디어 리터러시를 통합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0년 에릭슨 연구소가 NAMLE와 함께 발표한 유아기 미디어 리터러시 보고서는 8세 미만 아동의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 지역 사회 전체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을 강조하며, 초기 교육에는 가정, 박물관, 도서관, 병원, 지역사회 기반 조직의 실무자가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모와 보호자 역시 가정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부모와 노년층은 여전히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소외된 집단으로 남아 있습니다(Heywood & Sembiente, 2023).

미디어 경험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비판적 탐구를 위해서는, 학습자의 나이와 발달 단계에 맞춰 어려운 주제라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이 필요합니다.

2019년 스냅샷 이후 뚜렷하게 드러난 과제 중 하나는 교육의 정치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NAMLE는 양질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형평성, 포용성, 사회 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합의와 함께 미디어 산업이 권력 시스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또 영향을 받는지를 포함해 사회에서 미디어 산업의 역할을 비판적으로 탐구하는 것"을 강조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체계와 메시지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면, 학습자는 성별이나 인종에 대한 미디어의 재현 방식, 또는 콘텐츠와

아이디어 검열과 같은 주제들을 포함해 다양한 쟁점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일부 지역사회에서는 이런 교육적 순간을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려는 시도로 오해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양질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단 하나의 정답이나 미리 정해진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 "증거 기반의 개방형 탐구 과정"입니다(NAMLE, 2023).

전미교육협회에 따르면, "잘못된 정보의 확산은 교육자와 교육청 관계자를 겨냥한 위협을 급격히 증가시켰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위협과 협박을 받았다"고 합니다(Graham, 2021). 이러한 조직적인 움직임의 결과, 2021년에는 36개 이상의 주에서 인종과 인종차별 관련 교육을 제한하는 법안을 채택하거나 발의했습니다(Stout & Wilburn, 2021).

또한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은 다양한 사회·문화적 이슈와 콘텐츠를 분석·성찰하도록 이끕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본질적으로 당파적이지 않으며, 학습자의 연령과 발달 단계에 맞게 어려운 주제도 금기시하지 않는 학습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사회에서는 학교, 교육과정, 교육청이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면서 이러한 논의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교육위원회를 정당과 연계된 위원으로 교체하고, 교육과정을 감사하며, 도서를 금지하고, '반백인주의'로 간주되는 형평성 증진 노력을 해체하려는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Kingkade 외, 2021).

따라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현황을 이해하려면, 학습자들이 현대적이든 역사적이든 자신이 받는 메시지와 그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제도를 깊이 비판적으로 사고하도록 요구하는 교육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대중 이해

2019년 스냅샷에서 NAMLE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의미와 교육 방법, 그리고 의미 있는 성과에 대한 인식을 심화하는 등 대중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당시 우리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기호학, 영화학, 문화연구, 교육 기술, 교육공학, 정보 리터러시 등 다양한 분야에 뿌리를 둔 하이브리드 분야”라고 언급했습니다(Culver & Redmond, 2019).

4년이 지난 지금도 이 분야는 여전히 공통된 정의와 용어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정책에 대한 지지가 확대되면서, 모든 연령대의 개인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효과적으로 소통하며 능동적인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탐구 습관과 표현 능력을 기르는 NAMLE의 목표가 공통된 목적의식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모범 사례를 찾는 작업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를 구현하는 콘텐츠, 기술, 학습 결과의 폭과 깊이가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교육 사례가 동일하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교육은 광고 전략을 분석하거나 뉴스 기사에서 저자의 편향성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추는 반면, 또 다른 교육은 개인의 미디어 소비나 참여를 모니터링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다양한 기술을 포함해야 하지만, 그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정의하면 교육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Huget, 2019). 따라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공유된 이해를 발전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앞으로도 필요합니다.

대중 이해의 주요 주제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모습에 대한 공통점 찾기
- 미디어 리터러시를 다른 현대 리터러시와 연결하기
- 오보 및 허위 정보 강조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시민적 성과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이미 시행 중인 주(州) 차원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요구 사항에 대한 뉴스 보도 방식은, 대중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오해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NAMLE은 실제 법안에 쓰인 문구와 언론에서 이를 설명하는 방식 사이에 종종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더 정확하고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뉴저지 주에서 2023년에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와 디지털 기술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통과시킨 법안은 여러 언론 기사 제목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법안”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정보 리터러시 법안”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Burney, 2023; Sitrin, 2023). 그러나 실제 법안의 문구는 주 교육위원회가 “정보 리터러시에 관한 뉴저지 학생 학습 기준을 채택해야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New Jersey S588, 2023).

대중 이해 (계속)

실제로 해당 법안은 “정보 사용과 관련된 경제적, 법적, 사회적 문제”나 “정보의 윤리적 생산”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미디어 리터러시와 정보 리터러시 교육 두 영역 모두를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이나 대중이 두 용어를 혼용해서 쓰다 보면, 주(州)가 실제로 어떤 교육 요구 사항을 채택했는지에 대해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미디어 리터러시와 정보 리터러시는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동시에 구별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두 개념이 가진 고유성과 상호 보완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핵심 성과 중 하나는 정확한 정보를 다른 메시지와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뉴스 미디어는 최근 캘리포니아에서 통과된 법안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수 요건’으로 소개했습니다(Gonzalez-Britt; Najib, 2023). 그러나 실제 법안 내용은 캘리포니아 학교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어떻게 시행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부적으로, 이 법안은 ‘교육품질위원회’가 차기 영어 교육과정 개정 시 도서관 기준을 반영하고, 각 학년 수준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콘텐츠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가 수학·과학·역사·사회과학 커리큘럼에도 미디어 리터러시 콘텐츠를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 법안은 커리큘럼 개정 시 미디어 리터러시 콘텐츠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검토하도록 요청한 것입니다. 추가적인 지침과 후속 조치 없이는 이러한 검토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사회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관련한 학교 변화에 대해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2019년 이후 미국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특히 오보와 허위정보 문제가 주요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핵심 성과 중 하나는 정확한 정보를 다른 메시지와 구별하는 능력입니다. 허위 정보가 중요한 역할을 했던 2020년 대통령 선거 이후, 2022년 여론조사에서는 미국인의 91%가 부정확한 정보 확산을 우려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응답자의 약 4분의 3은 잘못된 정보가 극단적 정치 견해나 심지어 증오 범죄를 부추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021년 RAND 보고서*는 ‘진실의 쇠퇴’. 즉, 정치·시민 담론에서 사실·데이터·분석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현상에 미디어 기술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이를 완화하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 미디어 리터러시를 제시했습니다. 보고서는 학습자들이 “현대의 정보원과 도구가 이용 가능한 사실과 관점을 어떻게 제한할 수 있는지 이해”하고, 이를 통해 “증거에 기반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AND, 2021, p.4).

*미국 민간 연구기관 RAND가 ‘진실의 쇠퇴’ 현상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다룬 연구

주요 연구기관과 비영리 단체가 시민 절차에서 미디어 리터러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시민 참여 중심의 성과에 주목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만, 효과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사실과 허구를 구별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길러주는 다양한 기술과 태도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높이는 일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SNAPSHOT 2024:

분석 결과

설문조사 참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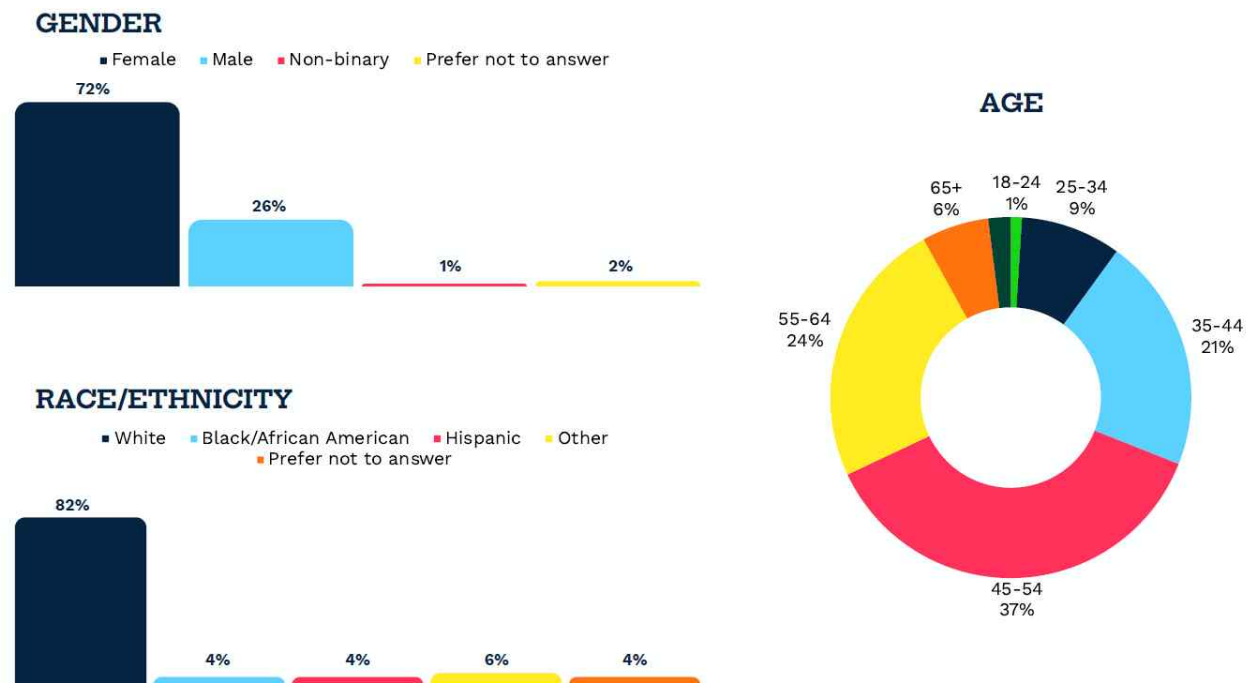
2023년 설문에 참여한 310명의 응답자 중 대부분은 여성(72%)과 백인(82%)이었습니다. 이는 여성 비율이 동일하고 백인 비율이 85%였던 2019년 조사와 거의 변화가 없는 수치입니다.

이러한 인구 통계는 2019년 권고사항을 여전히 강조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당시 권고에서는 “다양한 인구, 특히 유색인종 커뮤니티에 다가가 그들의 참여, 장학금, 교육 및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교육계에서 유색인종의 대표성을 높이는 문제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만 국한되지 않고, 교육 시스템 전반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 공립학교 교사의 인종적 다양성은 그들이 가르치는 학생의 인종적 다양성보다 훨씬 낮습니다 (Schaeffer,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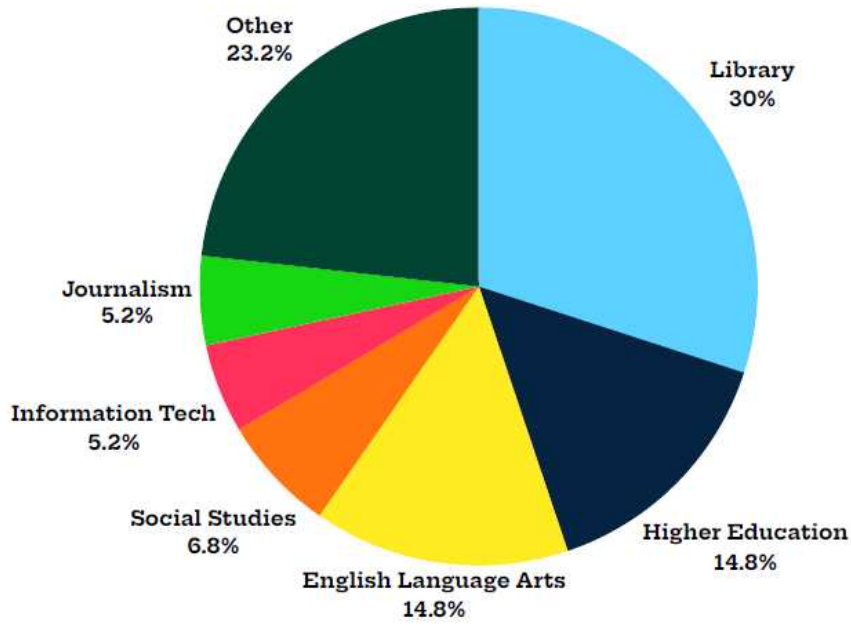
응답자 중 30%는 자신의 주요 업무 및 교육 분야로 ‘도서관’을 꼽았으며, 언어 교육을 담당하거나 고등교육 기관 소속인 응답자도 14.8%를 차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캘리포니아주(18.7%)와 뉴욕주(14.8%)가 가장 많은 응답자를 배출했으며, 일리노이주가 6.1%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일리노이주의 높은 비율은 2021년부터 모든 고등학생에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의무화한 주 정책에 대한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인구통계학적 프로필



주요 교육 분야



교육 분야

“기타”에 포함된 교육 분야:

- 과학
- 직업 기술 교육
- 수학
- 미술
- 유아/초등 교육
- 보건
- 특수 교육
- 세계 언어
- 학습 지도
- 상담
- 홍보
- 공연/순수 예술
- 영화 기획/제작
- 커뮤니케이션

설문조사: 소속된 조직/기관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또는 가르친 적이 있는지 설명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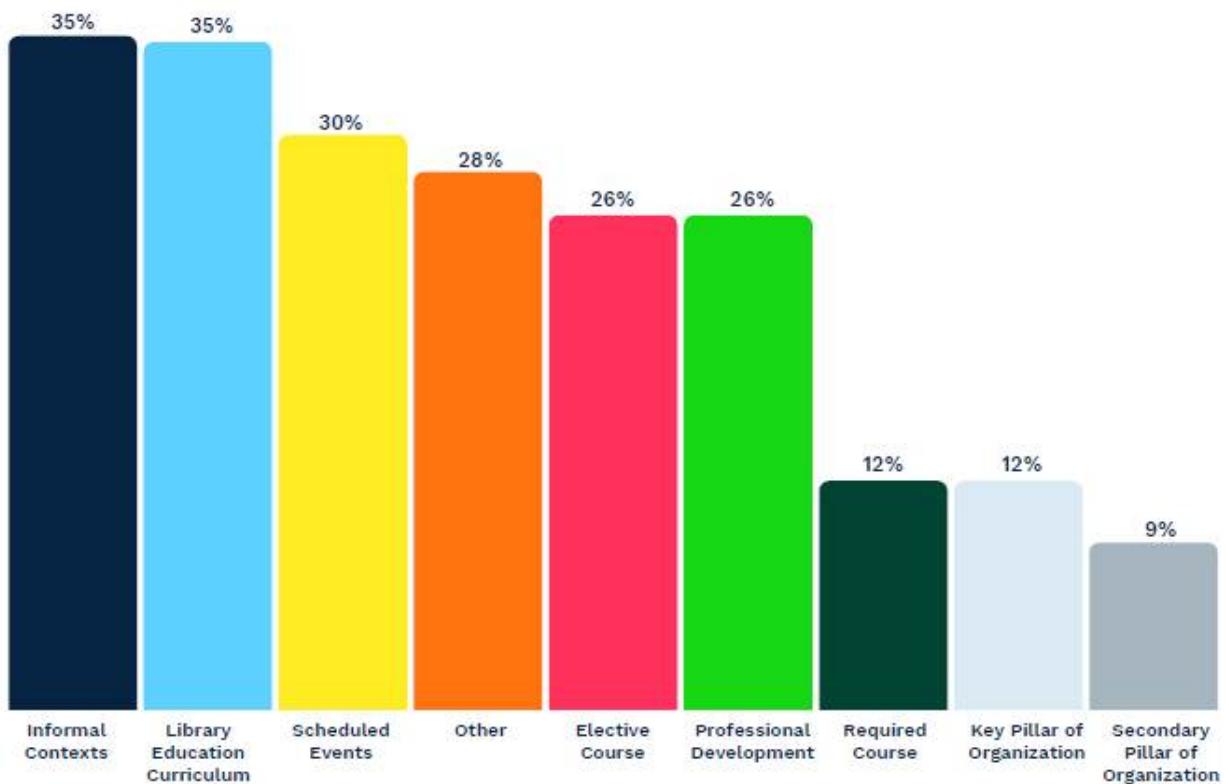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장소 및 방법

응답자의 다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비공식적인 수업(35.2%)과 도서관(34.8%)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응답자 중 약 30%가 도서관과 관련된 직업을 가진 교육자라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입니다. 동시에 이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보다 공식적인 교실 환경으로 확장할 여지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본 조사에서 '비공식적인 수업'은 학생 자치활동, 상담 교육, 지역사회 행사, 방과 후 프로그램 등을 통한 교육으로 정의되었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맥락

CONTEXTS FOR MEDIA LITERACY EDUCATION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교육이 어떤 맥락에서 발생하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깊이 이해하려면 더 많은 통찰이 필요합니다. 특히 교육 환경이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서로 다른 환경의 교육자들이 '비공식적 수업'을 어떻게 개념화하는지를 명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핵심 교과"로 간주되지 않으며, 성적표에 표시되지도 않고 대부분의 경우 시험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부가적인' 혹은 필수적이지 않은 주제로 여겨집니다."

-응답자

생각해 볼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디어 리터러시를 표준화 된 교과 영역과 함께 가르치는가, 부가적으로 가르치는가, 아니면 독립적으로 가르치는가?
- 학습은 현장에서,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평가되는가?
- 교육자들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개념화하고 있으며, 이를 더 잘 이해하고 보편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어떻게 체계화할 수 있는가?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주제는 너무 광범위해서 교사들에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응답자

또한, 도서관 환경에서 근무하는 교육자가 전체 응답자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한 점(2019년 24% → 2023년 30%로 증가)은, 모든 학생에게 미디어 리터러시를 제공하는 데 있어 사서와 도서관 미디어 전문가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분야에서 사서들을 주 교육자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은, 사서들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프로젝트 사례: 미디어 리터러시와 사서

도서관 사서의 역할을 강화한 사업이 이미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향후 좋은 모델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를 위한 리더로서의 사서(Librarians as Leaders for Media Literacy)'는 비영리 단체인 Project Look Sharp가 운영한 프로젝트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사서들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전문성 개발을 위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

- 뉴욕주에서 처음 구성된 19명의 사서들은 직접 수업을 진행하거나 교사와의 협업을 통해, 3,500명 이상의 학생에게 비판적 미디어 읽기(Critical Media Decoding) 수업을 제공함.
- 뉴욕주 내 절반 이상의 학교 도서관 시스템과 협력하여, 뉴욕 전역의 사서 600여 명에게 하루 동안 진행되는 비판적 미디어 읽기 교육을 제공함.

설문조사: 미디어 리터러시를 가르치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나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교실, 기관, 비영리 단체 또는 기타 조직에서 진행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주요 과제: 시간 및 자원

이번 질문에 응답한 310명의 일주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평균 시간은 11시간이었으나, 개별 응답은 상당히 다양하게 분포했습니다(표준편차 약 ±9시간). 응답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질문에서 가장 많이 나온 응답인 '5시간'을 평균 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분석 결과, 초·중·고·대학 교육 단계별로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 시간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사 응답자의 38.6%가 주당 8시간 미만을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에 사용한다고 답했으며, 중학교 교사의 56.8%, 고등학교 교사의 59.5%도 같은 응답을 했습니다. 대학(대학원 포함) 교육자의 경우, 39.7%가 주당 8시간 미만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할애한다고 답했습니다. 초·중·고·대학 전 교육단계를 통틀어, 주당 22시간 이상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사용하는 응답자는 총 26명이었습니다.

교실·교육기관·비영리단체 등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도입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 순위를 매겨 달라는 질문에는, '다른 교육과정과의 경쟁 요구'(31%)와 '시간 부족'(27%)이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2019년 보고서에서도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어려움으로 지적되어, 기존 교육과정에 미디어 리터러시를 실질적으로 포함시키는 데 있어 큰 변화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2023년 조사에서 새롭게 상위권에 오른 어려움에는 '기관 차원의 이해 부족'과 '기관 차원의 지원 부족'이 포함되었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할애된 시간

11시간
2023년 설문조사 응답자에 따르면 미디어 리터러시를 가르치는 데 주당 평균 11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방대한 주제이고 제대로 하려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문제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커리큘럼을 대폭 개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 응답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확산·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맞닥뜨리는 과제 중 하나는, 교실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어떻게 설명하고 수치로 보여줄 것 인가 입니다. 2019년 보고서에서는 교육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양적으로 측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2023년 조사에 이 질문을 추가한 것은 기본적인 이해를 위한 기준점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속한 학군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가 유치원부터 8학년까지의 교육과정에 통합되어 있지 않고, 개별 수업으로만 취급됩니다. 사이버 폭력과 같은 일부 주제는 단발성 수업으로도 가능하지만, 많은 부분은 실제 교육과정과 함께 가르쳐야 합니다.

이를 통합하도록 장려하는 행정적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사들 사이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응답자

의무교육 하루 평균 수업 시간이 6~7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주 5~8시간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할애한다는 것은 학습자들이 하루에 최소 1시간씩은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을 받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교과 영역별 수업 시간은 주(州)와 학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지만, 이번 조사에 응답한 교육자들의 경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정규 수업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교육자 상당수가 미디어 리터러시를 정기적으로 가르친다고 답한 것은 고무적인 결과입니다.

2023년 주요 과제

1. 기존 교과와의 우선순위 충돌(31%)
2. 시간 부족(27%)
3.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이해 부족(13%)
4. 재정 지원 부족(10%)
5. 기관 지원 부족(8%)

2019년 주요 과제

1. 기존 교과와의 우선순위 충돌
2. 시간 부족
3.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제도적 이해 부족
4. 콘텐츠, 교육과정 자료 부족
5. 재정 지원 부족

학교나 교육 기관에서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이해와 지원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 교육의 중요성과, 교사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고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지를 관리자나 교육청·주(州) 교육 관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설문조사: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자 교육은 주로 어떻게 받으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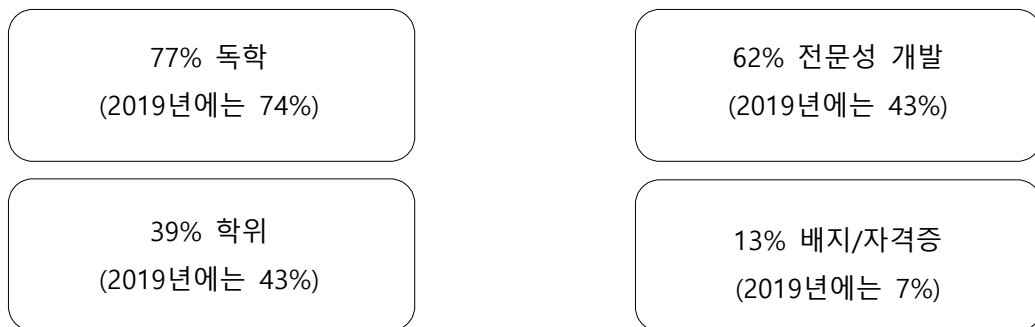
교육자들은 다양한 교육 및 커리큘럼을 사용합니다.

교사들을 준비시키는 일은 여전히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우리는 응답자들에게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연수를 받았는지 물었고, 복수 응답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2019년 당시 우리는 교사 연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으며, 2023년 조사 결과를 보면 전문가, 기관, 단체들이 이 필요를 채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에는 61.6%의 응답자가 교사 교육의 한 경로로 전문성 개발 기회를 꼽았는데, 이는 2019년의 43%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 변화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전문성 개발을 더 적극적으로 찾고 있거나, 혹은 관련 기회가 실제로 늘었음을 시사합니다.

PBS의 '공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자' 프로그램(KQED Teach 운영)과 같은 자격증 과정도 인기가 높아졌습니다²⁾. 2023년에는 응답자의 약 13%가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교사 지원을 받았다고 답했는데, 이는 2019년의 7% 미만에서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훈련을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를 물었을 때, 77%가 '독학'을 주요 학습 방법으로 꼽았습니다. 이는 2019년의 74%보다 소폭 증가한 수치입니다. 응답자들은 서술식 답변에서 독학에 활용한 다양한 교육과정과 자료를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답변은, 교사들이 기관의 지원 없이 스스로 기회를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도록, 교사의 전문성 개발 필요를 교육구와 주 교육위원회에 더 효과적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자 훈련



2023년 응답자 중, 11%는 컨퍼런스, 웹사이트, 멘토링을 포함한 기타 방법을 통해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했습니다.

2) PBS는 미국의 대표적인 공영방송 서비스, KQED Teach는 PBS 산하 지역 공영방송국 KQED가 교사 연수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교사들이 역량을 키우는 데 있어 '독학'은 흔한 방법이지만, 이러한 전문성 개발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 교사와 현직 교사를 위한 전문성 개발을 우선시하고 예산을 지원해야 하며, 주(州)와 교육구가 의무화한 교육과정 안에 미디어 리터러시를 명시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교육자들이 미디어 및 디지털 리터러시에 중점을 둔 수준 높은 전문성 개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응답자

자료는 매우 많지만, 충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사 양성을 위해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방법이 다양한 교과와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지, 또 기술 변화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깊이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과, 현장의 기존 자료를 교육구와 개별 교사에게 효과적으로 연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흥미롭게도 응답자의 49%는 비영리 단체를 통해 교육을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이 조사는 비영리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부문의 자금 및 역량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며, 다음과 같은 중요한 질문들을 제기합니다:

- 비영리 단체의 자금은 어디에서 조달되는가?
- 이러한 프로그램에서 모범 사례의 기준은 무엇인가?
- NAMLE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비영리 프로그램들의 활동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공유하고, 그 영향력과 확산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

약 70개의 기관 파트너와 함께하는 NAMLE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자들이 정규 교육, 비정규 교육, 지역사회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돕는 수많은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음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분야에 기여해 온 모든 노력, 프로그램, 연구, 교수법이 본 문서에서 모두 다뤄진 것은 아닙니다.

리소스 및 교육과정 출처

개방형 응답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출처들



설문조사: 강의 또는 프로그램 내용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반영되고 있는 주제는 무엇입니까?

주요 과제: 양질의 정보 식별하기

2019년과 비교했을 때, 2023년 응답자들은 미디어 리터러시 강의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주제에 일부 변화가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응답자들에게 각 주제가 얼마나 두드러지게 다뤄졌는지를 순위별로 평가하도록 요청했으며, 2019년의 모든 주제 항목을 유지하되 일부를 통합하고 새로운 주제를 추가했습니다.

2023년에 새롭게 선정된 주제는 미디어법과 윤리(수정헌법 제1조 포함), 개인적 편견, 오보/허위정보, 인공지능입니다. 언론 자유와 수정헌법 제1조를 둘러싼 논의(도서 금지, 교육과정 검열 등)가 확대되면서, 올해 주제에 '미디어 법과 윤리'가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올해 설문조사에서는 편향성 주제를 두 가지 선택 항목('미디어 의제/미디어 편향성'과 '개인적 편향성')으로 분리하여, 미디어 제품에도 편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디어 경험에 편향을 가져온다는 점을 더욱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많은 주법안과 교육부 정책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반영하기 위해 2023년에 '디지털 리터러시'가 새로운 주제 선택 항목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오보/허위정보'와 '인공지능'이 추가된 것은 2019년 이후 미디어 기술의 주목할 만한 변화를 반영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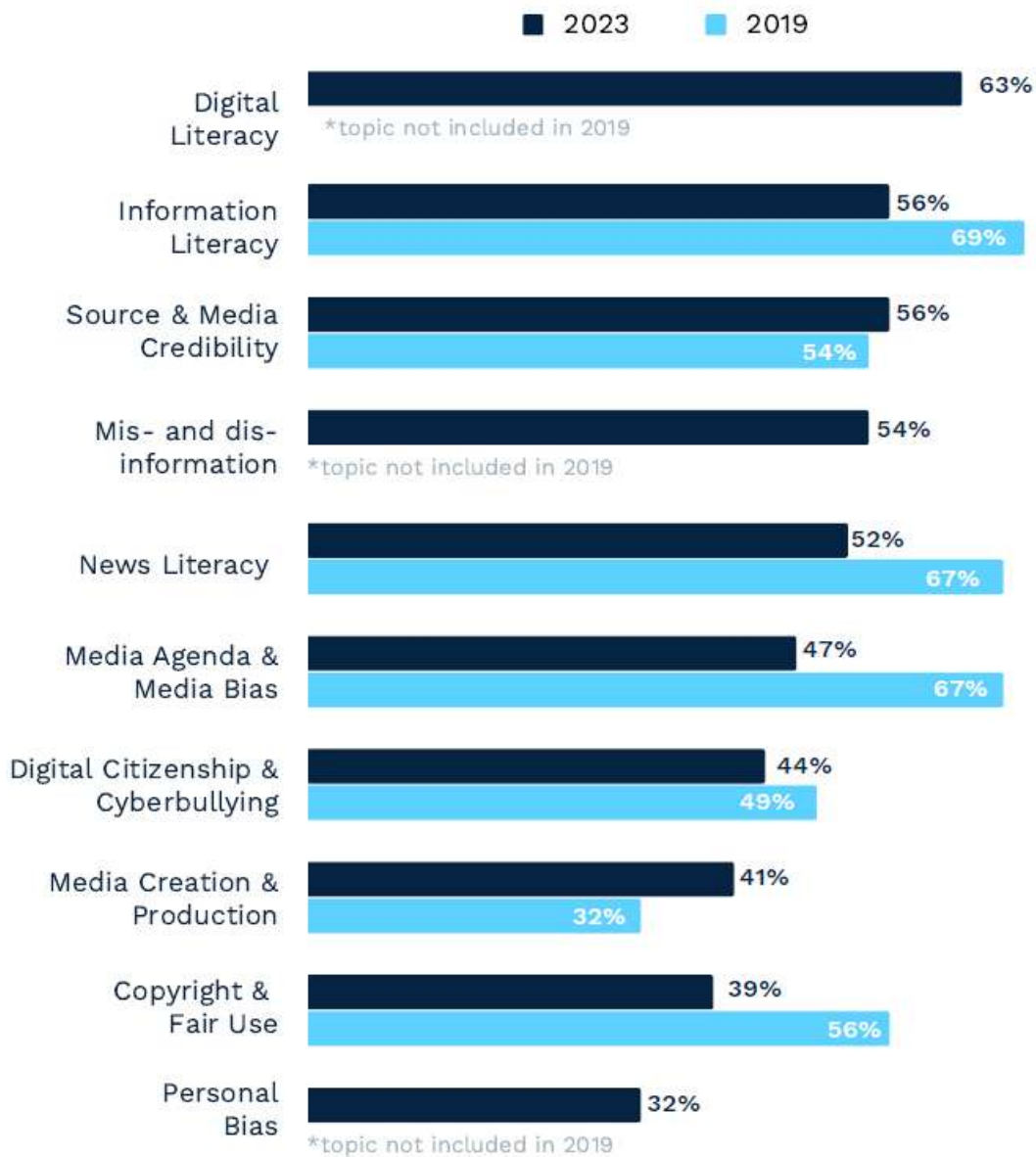
2023년 응답자 그룹은 '미디어 의제 및 미디어 편향성'과 관련된 콘텐츠의 비중이 2019년에 비해 낮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올해 설문조사에 새롭게 추가된 주제인 '오보/허위정보'는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54%)이 미디어 리터러시 강의 또는 프로그램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라고 응답했습니다. 정보 리터러시는 2023년 응답자 그룹의 최우선 관심사로, 56%가 자신의 업무에서 이 주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응답자의 약 30%가 도서관 관련 직함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보 리터러시에 대한 높은 관심을 일부 설명해 줍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강의 & 프로그램에서 가장 주목받는 주제

1. 디지털 리터러시(63%)
2. 정보 리터러시 (56%)
3. 출처 및 미디어 신뢰성(56%)
4. 오보/허위 정보(54%)
5. 뉴스 리터러시(52%)
6. 미디어 의제 및 미디어 편향성(47%)

주요 콘텐츠 영역 (그래프 이미지 참고)

- 디지털 리터러시
- 정보 리터러시
- 소스 및 미디어 신뢰성
- 오보 및 허위정보
- 뉴스 리터러시
- 미디어 의제 및 미디어 편향성
- 디지털 시민권 및 사이버 괴롭힘
- 미디어 창작 및 제작
- 저작권 및 공정 사용
- 개인적 편향성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번 결과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서 계속 언급되는 어려움 중 하나인 용어와 교육 범위에 대한 통일성이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많은 응답자들이 미디어 리터러시와 그 학습 영역을 정의하는 데 합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2019년 '스냅샷' 보고서에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 복잡한 세상에 접근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를 원하며, 미디어 리터러시는 이러한 배경을 제공합니다.”

-응답자

비슷하게, 이런 주제들이 뒤섞여 쓰이는 일은 교실뿐 아니라 정책과 언론 보도에서도 나타납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정보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같은 용어는 종종 혼용되거나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물론 이 개념들은 기본적인 이해와 접근 방식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각기 다른 학습 목표와 수업 방식을 지향하는 별개의 영역입니다.

2023년 설문조사의 시점 역시 교육자들이 미디어 리터러시 프로그램과 강의에서 어떤 주제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는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설문조사 기간은 2023년 가을 학기가 시작되기 직전인 2023년 8월에 마감되었으며, 교사와 정책 입안자들이 ChatGPT를 비롯한 정교한 인공지능의 출현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시기와 맞물렸습니다. 설문조사 응답자의 상위 5개 주제에 인공지능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조사 시기가 석 달만 늦춰졌더라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서 어떤 주제에 초점을 맞출지에 대한 관점과 우선순위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큼니다.

관련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주제를 이해한다고 해서, 그 주제의 학습 목표까지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제가 어떻게 다뤄지고 있으며, 그 결과 어떤 학습 성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분야의 실천가, 연구자들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기본 역량을 충족시키는 필수 학습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가 사회와 기술의 변화에 맞춰 끊임없이 발전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와 미래의 미디어 리터러시가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핵심 기술, 습관, 지식 요소를 더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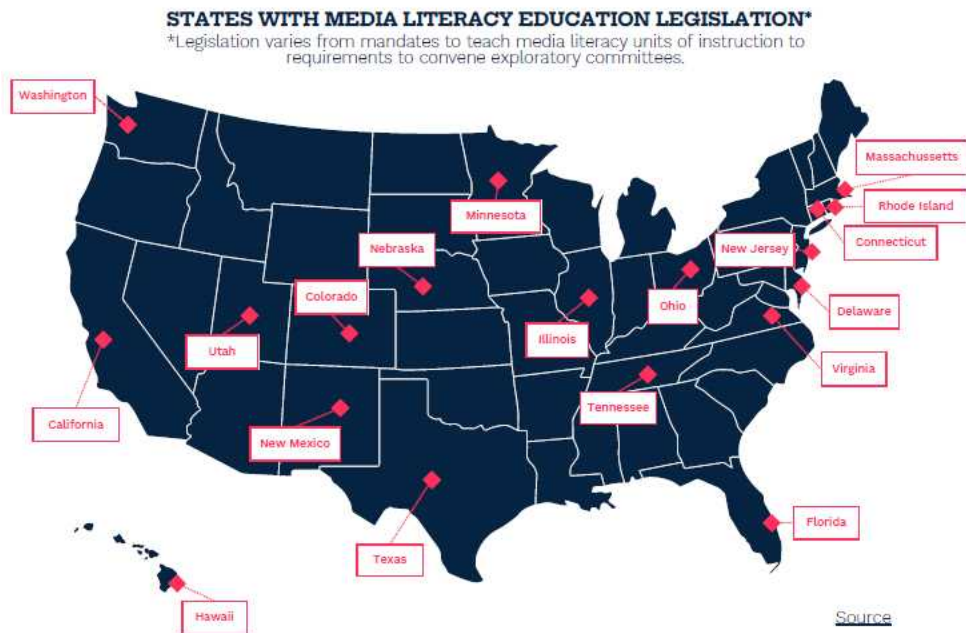
설문조사: 소속된 주 또는 학군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가르치는 데 필요한 요건이 있나요(알고 계신가요)?

국가별 정책과 교육자의 인식 차이

2023년 설문에는 새롭게, 응답자들에게 자신이 속한 교육구 또는 주 정부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의무화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을 추가했습니다. 이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의무화하려는 계획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교육구 또는 주 차원의 고유한 요구 사항이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뉴스 리터러시, 정보 리터러시 등과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지를 더 잘 이해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또한 주에서 법안과 정책이 도입되고 통과됨에 따라, 해당 법안이 실제로 어떻게 제정될지, 어떤 자금이 지원될지, 그리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관련된 커리큘럼과 교실 내 실천을 누가 주도하게 될지에 대해 모호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응답자의 약 절반(45%)은 소속 교육구나 주의 의무 사항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으나, 개방형 응답에서는 교육청과 주 정부가 법률·의무화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법안을 보유한 주
법률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의무화하는 규정부터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요구까지 다양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설문조사 결과, 몇몇 주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법이 이미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자들이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법률 제정이나 의무화, 교육 자료 제공 등을 통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우선시하는 주의 일부 응답자들도, 실제로 어떤 요건이 있는지, 정책이나 의무가 어떻게 시행될지, 교사들이 어떤 방식으로 연수를 받고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해 혼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런 인식 차이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구성 요소와 범위에 대한 공통된 합의가 부족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별 요구 사항에 대한 혼란

- 텍사스의 응답자 중 3명은 어떤 의무 사항도 알지 못한다고 답했지만, 2022년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텍사스 주의회는 주 교육위원회가 각 학군에 디지털 시민성 교육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습니다. 텍사스에서 정의하는 디지털 시민성 교육에는 미디어 리터러시가 포함됩니다(p.6).
-
- 일리노이주 응답자 4명은 어떤 의무나 법안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답했지만, 2021년 제정된 법에 따라 일리노이주의 모든 고등학교는 2022~2023학년도부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단원을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Media Literacy Now, 2022).

일부 주의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법안에서는 교육 의무화보다는 리소스 제공이나 교육 기준 설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혼란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콜로라도에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의무가 없지만, 2021년에 통과된 법안은 교육부가 초·중등학생이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해 갖춰야 할 지식과 기술을 규정하기 위해 읽기, 쓰기, 시민성 기준을 개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와 오하이오 역시 주 교육위원회가 모든 학년에 걸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반영한 교육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을 시행하고 있지만(Media Literacy Now, 2022), 명시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를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때문에 주와 교육구에서 만든 교육 기준에 따라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교사들 중 일부는 콜로라도, 플로리다, 오하이오의 이런 법안을 사실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의무 조항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방형 응답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교육자들의 답답함도 드러났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한 응답자는 교육구 차원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도입을 추진했지만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2022년 11월,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핵심 교과 과정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지원하는 법안에 서명했지만, 이 보고서 발간 시점까지는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응답 내용에서는 일부 교육자들이 현재 주 교육 기준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취지와 방향에 맞춰 재해석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계속)

주 요구사항에 대한 관점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언어나 국어 과목이 아니라 예술 과목에서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르쳐야 하는 핵심 내용’이라기보다 교육 기준에 언급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 사우스캐롤라이나 응답자

“버지니아 학습 기준은 각 학년별로 특정 미디어 관련 주제를 가르치고 숙달하도록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과제나 조사 활동을 통해 인터넷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고 자료의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6학년 학생들은 공익광고의 목적을 파악하고 직접 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버지니아 응답자

“학교에 사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서가 있는 경우 교육 콘텐츠의 25%는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미디어 접근, 분석과 평가, 공유와 협업, 실천 기준이 포함됩니다.”

- 오하이오 응답자

“기준에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용어가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1차 및 2차 자료의 편향성과 대상 독자에 대한 이해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위스콘신 응답자

“기본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지원하는 것은 주 정부의 의무입니다.”

- 펜실베이니아 응답자

스냅샷 2024:

권장 사항

권장 사항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관심과 추진력은 꾸준히 커지고 있습니다. NAMLE가 추진하는 계획과 프로젝트의 성장세만 봐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NAMLE 회원 수는 2019년 약 5,000명에서 2023년 8,000명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 미국 '미디어 리터러시 주간' 참여율은 2019년 이후 185% 이상 늘어났습니다.
- 2024년 1월 기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저널은 2023년 1월 이후 125,000회 이상 다운로드되었습니다.

설문조사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그리고 지금까지의 진전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NAMLE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국가적 우선순위로 계속 추진하기 위한 세 가지 권고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미디어 리터러시의 목적과 성과를 명확히 하고, 이를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둘째, 모든 학년에 걸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확대해야 합니다.

셋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투자해야 합니다.

NAMLE 권장 사항

① 명확화 및 협업

공통된 메시지와 성과를 위해 협력하세요.

② 전학년에 걸친 미디어 리터러시 확장

초중고 교육 노력을 강화하세요.

③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투자

지역, 주, 국가의 미디어 리터러시 활동에 자금을 투입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이러한 권장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실천 방안을 제안합니다.

① 명확화 및 협업

미디어 리터러시의 범위가 넓다는 점은 분명 강점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 분야를 지나치게 좁게 정의하면 이해와 성장, 그리고 혁신의 가능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전반에서 협업을 강화할 수 있는 두 가지 즉각적인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 증진을 위한 협력적 노력 개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공통 역량 파악
<p>2019년 권고안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실제로 무엇을 요구하는지 뉴스, 디지털, 정보 리터러시를 포함한 그 이상의 범위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분야 전반에 걸친 조율된 인식 제고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들 분야의 연관성을 명확히 해야만, 학습자는 자신이 가진 지식과 세상을 경험하는 데 필요한 기술, 그 경험이 세계관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숙련된 미디어 제작을 통해 단순한 관객이 아닌 시민으로 참여하는 데 요구되는 비판적 사고 역량을 더욱 효과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p> <p>가능한 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의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공통 용어를 사용하는 데 동의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단체 및 협회들의 연합을 구축합니다. • 전국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대중 인식 캠페인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 지원자를 유치합니다. • 장기적인 전국 언론 보도 계획을 포함한 조율된 미디어 전략을 통해 미디어 리터러시의 성과와 노력을 널리 알립니다. 	<p>모든 학년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다뤄야 할 핵심 지식과 기술을 명확히하기 위해, 교육자·연구자·전문가·미디어 리터러시 옹호자 간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권장합니다. 학습 기준이나 콘텐츠 영역 기준은 보통 주 또는 학군 차원에서 채택·승인되지만, 기존 기준을 바탕으로 현장 전반에 걸쳐 공통된 미디어 리터러시 학습 성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이에 답할 필요가 있습니다.</p> <p>“학습자가 의무교육 과정을 마치는 동안 반드시 습득해야 할 필수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무엇인가?”</p> <p>가능한 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자, 학자, 교육과정·수업 설계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 그룹을 조직해,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필수적으로 다뤄야 할 미디어 리터러시 학습 성과를 파악합니다. • 이러한 학습 성과에 대해 정책 및 입법 결정 과정에서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전문가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 전국 미디어 리터러시 연합을 활용해, 합의된 핵심 학습 성과를 전국적으로 보급하고 확산합니다.

② 전학년에 걸친 미디어 리터러시 확장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모든 연령대에서 필요합니다. 특히 미국의 의무교육 과정 속에 미디어 리터러시를 더 폭넓게 통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이 요구됩니다.

유치원-6학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하기	교육과정 통합 간소화
<p>응답자 310명 중 초등 교육자라고 답한 비율은 3% 미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점점 더 어린 나이부터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고 미디어를 접한다는 점에서, 모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현재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 전략에 비해, 유아 및 저학년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연구와 자료는 여전히 부족합니다.</p> <p>저학년 시기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면, 중등·고등 교육으로 이어지는 학습 기반을 더욱 탄탄하게 만들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평생에 걸친 미디어 리터러시 실천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p> <p>가능한 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행과 평가에 초점을 둔 유치원~6학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연구를 지원하여, 발달 단계에 적합한 교육 모델을 개발합니다. • 기존의 초·중학교 기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및 교사 프로그램을 조사·분석하여 격차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합니다. • 교육자가 미디어 리터러시를 수업에 자연스럽게 통합할 수 있도록 돕는 실용 가이드를 제작합니다. 	<p>교육과정이 교육구와 주 차원에서 보다 원활하게 통합되도록,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리소스를 확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 개정과 주별 기준 연계 작업에 충분한 시간, 자원, 예산을 투입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교사들이 기존 수업에 미디어 리터러시 요소를 쉽게 포함시킬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p> <p>2019년과 2023년 스냅샷 응답자들은 기존 교육 기준과 프레임워크가 보다 명시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지지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으며, 이러한 연결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원과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p> <p>가능한 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별 워킹 그룹을 구성해, 각 주의 교육 기준에 미디어 리터러시를 통합하는 모델 교육과정 프레임워크 초안을 마련합니다. • 도서관 미디어 전문가가 주도한 성공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사례를 발굴·확산하여, 학교가 이러한 인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제공합니다. • 미디어 중심의 진로 준비 프로그램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포함하는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여,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③ 투자 확대

재단과 정부에서부터 단체와 기업에 이르기까지 교육을 지원하는 모든 주체들은 두 가지 특정 분야에 대해 지속적이고 증대된 자금 지원을 검토해야 합니다.

전문성 개발 우선시	주정부 의무 사항 지지
<p>예비 교사와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한 전문성 개발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도록 노력의 방향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많은 비영리단체와 교육기관이 성공적인 전문성 개발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를 한 단계 발전시켜, 공식적인 전문성 개발 체계와 풀뿌리 계획·프로젝트, 워크숍, 연구소, 기관, 컨퍼런스 등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교육기관 및 교원 인증기관과의 협력도 포함됩니다.</p> <p>가능한 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차원의 전문성 개발 전략 및 실행 계획을 수립해 교사들이 효과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합니다.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포함한 예비 교사 교육 프로그램을 조사·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문성 개발 모델을 개발합니다. • 지역 사회 단체와 교사를 연결하는 지역·지방 차원의 네트워크와 계획을 구축합니다. 	<p>비록 더 많은 주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법안을 승인하고 있지만,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자금과 지원에는 여전히 큰 격차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주 의원들은 자신들이 통과시킨 정책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과 실질적인 실행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의무화는 절반의 성공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학생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실현하려면, 새로운 주 단위 계획과 프로젝트에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p> <p>가능한 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이행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주 정부 차원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예산을 추적할 수 있는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합니다. • 기존 및 신규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주 정책의 이행을 평가·연구하여, 정책의 요구사항과 비용 구조를 명확히 파악합니다. • 정책 입안자들이 교육에서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브리핑·프레젠테이션·의회 대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결론

우리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확고하게 지지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출처의 편향을 분석하거나 필자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수준을 넘어, 미디어와 기술의 제품, 시스템, 제도, 경험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다양한 집단에 미치는 불균형적 영향까지 인식하는 교육이어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정치화를 우려하지만, 우리는 이 분야가 추구해야 할 기본 원칙을 분명히 말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열은 양질의 교육과 양립할 수 없다는 점, 역사적·현대적 맥락에서 미디어가 재현(representation)과 다양성 문제에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이해하는 것이 균형 잡힌 사고를 기르는데 필수적이라는 점, 그리고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 경험이 민주사회가 작동하는 토대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열린 태도와 비검열적인 학습 환경이 마련되어야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공교육이 가는 길이 곧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또한 이러한 권장 사항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두 가지 핵심적이고 지속적인 요건(산업계와 학계의 탄탄한 연구, 그리고 다양성·형평성·포용성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고려한 맥락에서 검토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미디어 리터러시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교육 효과와 영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는 지속적인 학문적 탐구는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제시한 각 권고 사항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추가 연구의 토대가 됩니다. Journal for Media Literacy Education과 같은 개방형 연구 플랫폼은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평가 및 실행을 위한 공통 지표를 만들어 가는 데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과정·교수법, 심리학, 미디어 연구 등 다른 학문 분야의 저널에 실린 미디어 리터러시 실천에 대한 메타 연구 역시 우리의 이해를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이 모든 학습자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교육 시스템과 정책, 실천이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변화하고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NAMLE의 아홉 번째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형평성, 포괄성, 사회 정의 및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미디어 산업이 사회의 권력 시스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또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비판적 탐구를 강조한다.” (NAMLE, 2023)

따라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지지하고, 이 분야를 성장·유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은, 이러한 비판적 탐구를 촉진할 수 있는 구조와 접근 방식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미국 교육은 여전히 인종적·민족적 다양성이 부족합니다. 우리 분야는 지금까지 포함되지 못했던 목소리를 계속 찾아내고, 그들의 이야기를 더 크게 전달해야 합니다.

NAMLE는 다양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자를 지원해 온 경험을 통해, 이 일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작 스스로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자'라고 생각하지 않거나, 충분한 교육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느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NAMLE는 누구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자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번 설문조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아, 이 중요한 일을 계속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미국에는 이미 견고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기반과 전문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할 것은 이 역량을 강화하고, 변화를 가속화할 수 있는 임계점을 만들기 위한 자금 지원입니다.

2019년 우리는 이렇게 썼습니다.

“교육자, 기관, 미디어 및 기술 기업, 선출직 공무원, 그리고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심 있는 다른 이들과 협력하여, 오늘날의 학생과 시민들이 성공적인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할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의 가치, 목적, 그리고 교육학을 의도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Culver & Redmon, 2019)

4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사명은 변함이 없습니다. 2019년 이후 우리 커뮤니티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서 쌓아온 꾸준한 노력과 의미 있는 진전을 인정하며, 그 과정에서 이미 일부 권고 사항들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역할을 다하길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은 재단, 정부, 기업, 그리고 다양한 기관의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자금 지원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부록

설문조사 질문

1. 연락처 정보를 제공해 주세요. 이름, 소속 기관/단체, 도시, 주, 우편번호, 국가, 이메일)
2. 귀하의 직책/직함은 무엇인가요?
3. 귀하의 주요 교육 분야는 무엇인가요?
4. 귀하의 최종 학력은 무엇인가요?
5. 귀하의 연령을 선택해 주세요.
6. 귀하의 성별은 무엇인가요?
7. 귀하의 인종/민족은 무엇인가요?
8. 알려주고 싶은 웹사이트나 블로그가 있다면 URL을 알려주세요.
9. 귀하의 주요 역할은 무엇인가요?
10. 귀하의 주요 역할에서 미디어 리터러시에 의도적으로 할애하는 시간은 (매주) 얼마나 되나요?
11. 귀하의 기관/단체에 미디어 리터러시가 어떻게 포함되어 있거나 포함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12. 아래 주제 중 귀하의 강의 및 프로그램 내용에 가장 두드러지게 반영된 주제는 무엇인가요?
13. 미디어 리터러시를 가르치기 위해 어떤 자료(웹사이트, 교과서, 커리큘럼 리소스 등)를 사용하고 있나요?
14. 해당하는 경우, 귀하의 교육과정, 강의 계획서 또는 주요 웹사이트 링크를 공유해 주십시오.
15.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교실, 기관, 비영리 단체 또는 기타 조직에 통합하는 데 있어 다음 도전 과제들을 1부터 8까지 순위를 매겨 주십시오(1이 가장 중요한 도전 과제, 8이 가장 덜 중요한 도전 과제).
16.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합할 때 직면하는 주요 도전 과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17.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자 교육을 주로 어떻게 받으셨나요?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하세요.
18. 어떤 조직이나 기관을 통해 교육을 받았나요?
19. 소속된 주 또는 학군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요구 사항이 있나요(알고 계신가요)?
20. 해당되는 경우, 소속 주 또는 교육구의 의무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21.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경험에 대해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다른 정보가 있나요?
22.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후속 이메일을 받을 의향이 있으신가요?

감사의 말씀

NAMLE 소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대표적인 목소리이자 연결자, 그리고 풍부한 자원의 허브인 NAMLE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필수적인 삶의 기술로 자리 잡게 하고, 이를 널리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NAMLE가 꿈꾸는 미래는, 미국과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모든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을 자유롭게 접근하고, 분석하며, 평가하고, 창작하고, 행동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세상입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바로 이러한 역량을 키우는 실천입니다.

우리는 교육과 미디어를 폭넓게 정의합니다. 교육은 공식·비공식 환경을 모두 포함하며, 교실과 거실, 학교와 방과 후 프로그램 등 평생 학습자가 도달할 수 있는 모든 장소를 아우릅니다. 미디어는 디지털 미디어, 컴퓨터, 비디오 게임, 라디오, 텔레비전, 모바일 미디어, 인쇄물, 그리고 아직 세상에 등장하지 않은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까지 포괄합니다.